

To Live is Christ

Steve Mickel

June 16, 2024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스티브 미켈 2024년 6월 16일

**Greetings...**it's so good to be back with you...I'm thankful for Pastor Bo and Cliff – the way they've held such a significant assignment with grace and humility and a constantly learning and growing posture...**Happy Father's Day...**I've noticed something in many churches, that on Mother's Day we honor the mom's and on Father's Day we rebuke the Dad's...let's not do that – instead let's honor the Father's in the house and the way I want us to do that today is by reading a liturgy that Pastor Steve Mitchell wrote and then pray for our Dad's... **invite the Dad's to lift their hands as receiving a gift...**

아버지의 날을 축하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어머니의 날에는 어머니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날에는 아버지를 책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집안의 아버지들을 존경합시다. 이를 위해 스티브 미첼 목사님이 작성한 예식을 읽고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들에게 선물을 받는 자세로 손을 들어 달라고 초대합니다.

EVERY-MOMENT-HOLY-STYLE LITURGY:

Many are the daily tasks a dad must do.

Meet us therefore in our labors as fathers, O Father of all  
With your provision that we might rest well with our families;  
With your favor that we might lay hold of our legacy;  
With your protection that we might escape the snares laid for us;  
And with Your Presence, that we may not lose our way.

Give us strength as we toil  
In the planning;  
And the traveling;  
And the building;  
And the coaching;  
Through endless demands and inevitable discouragement.

Grant us the wisdom of stewardship  
So that pursuing our daily bread  
Does not consume the whole of our lives.

High King of Heaven, the Servant of All,  
Be our inspiration and our ambition,  
Our healer and our guide  
Our faithfulness and our joy.

Lead us to freedom through your love  
From the wounds we've suffered  
From the lies we've believed  
From sin that would cage us.

We offer ourselves to you freely in our vocation  
To love our families  
To care for their needs  
And to share the stories of our scars and victories with those who follow.

Amen

매순간 거룩한 기도의 형식:

아버지가 매일 수행해야 하는 일은 많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버지의 아버지이신 주여,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노동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당신의 공급을 주시고; 우리의 유산을 붙잡을 수 있도록 당신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놓인 울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신의 보호를 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당신의 임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여행하며; 건축하고; 코칭하며; 끝없는 요구와 피할 수 없는 낙담 속에서도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청지기의 지혜를 주시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는 일이 우리의 삶을 모두 소비하지 않도록 하소서.

하늘의 대왕이자 모든 이의 종이신 주여, 우리의 영감과 야망이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와 안내자가 되시며, 우리의 신실함과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에서, 우리가 믿었던 거짓말에서, 우리를 가두려는 죄에서 자유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며,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상처와 승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의 소명에 기꺼이 자신을 드립니다.

아멘

### **Let's thank our Dad's for their lives and contributions to us...**

I believe this is a mission-critical moment in the life of the Church... a crossroads moment... I think we are in danger of losing the Christ in our Christianity... How we embody the life and love of Jesus in this cultural moment matters...

One of my favorite of Paul's letter is the book of Philippians... Paul has so much to teach us how to navigate the cultural realities we currently live in..."

우리 아버지들께 그들의 삶과 우리에게 한 기여에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에서 중대한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전환점이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를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문화적 순간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어떻게 구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문화적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기도합니다..."

### **PRAY...**

Now I want you to know, brothers and sisters, that what has happened to me has actually served to advance the gospel. Philippians 1:12 NIV"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려 주고자 하는 바는 내 사정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빌립보서 1:12, NIV)

Background for "what happened" to Paul is in Acts 21 through 28...

He wanted to go to Rome as a preacher, he went as a prisoner...

We see his perspective on suffering, persecution, and trouble – that they would advance of the gospel... that everything Paul experiences would serve to advance the gospel...

바울에게 일어난 배경은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전도자로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죄수로 갔습니다...

그는 고난, 박해, 어려움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 그것들이 복음 전파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경험하는 모든 일이 복음을 전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The word “advance” is a Greek military term referring to the army engineers who go before the troops to open the way into new territory. Instead of finding himself confined as a prisoner, Paul discovered that his circumstances opened up new areas of ministry.

"진출"이라는 말은 그리스의 군사 용어로, 병력을 선행하여 새로운 영토로 길을 여는 군사 기술자들을 가리킵니다. 죄수로서 자신을 갇힌 것이 아닌, 바울은 그의 처지가 새로운 사역의 영역을 열어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In this passage, Paul describes himself not as a warrior but as an engineer – like John the Baptist, who prepared the way for the Lord – he saw himself paving the way for Jesus in the lives of people all over the Roman empire, including Philippi and Rome. Clearing out barriers and making the gospel more accessible.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전사가 아닌 기술자로 묘사합니다. 마치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요한 세례자처럼, 그는 자신을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로마 제국 내의 사람들의 삶에서 예수를 준비하는 길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바울은 블립보와 로마를 포함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장애물을 청소하고 복음을 더욱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It makes me think of Henry Ford** – he engineered a car to be accessible to more people by rethinking the way cars were built, and in so doing, he opened new territory in automobile design...not just an individual who built cars **but an assembly line inventor** that changed the world.

Paul would repackage the gospel in a way that opened it up to everyone: Jews and Gentiles, slaves and free, women and men...

Because Paul had one mind – the gospel...it was the central message of his life – I preach Christ, and him crucified...he didn't allow cultural realities to distract him from that one purpose – the advance of the gospel...

Matter of fact, how Paul responded to three areas will teach us how to bring the good news into our broken world: his chains, his critics, and his crisis...

헨리 포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자동차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자동차 제작 방식을 혁신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동차 디자인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그는 자동차를 만드는 개인이 아니라, 생산라인을 발명하여 세상을 바꾼 혁신자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모든 이에게 개방하기 위해 복음을 새롭게 포장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노비와 자유인,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문화적 현실에 끌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 메시지는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우리가 우리 상처받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사슬, 그의 비평가들, 그리고 그의 위기.

## PAUL'S CHAINS

As a result, it has become clear throughout the whole palace guard and to everyone else that I am in chains for Christ. And because of my chains, most of the brothers and sisters have become confident in the Lord and dare all the more to proclaim the gospel without fear. Philippians 1:13-14 NIV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슬에 매인 것이 오히려 온 궁내 경비대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되었고 또한 내 사슬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대다수의 형제가 더욱 담대해져 주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빌립보서 1:13-14 (개역한글)

Instead of complaining about his chains, he consecrated them for God's purposes... they became a conduit to reach hurting people...

- The four different Roman soldiers guarding him every 24 hours
- The officials in Caesar's court who were not only putting Paul on trial but the Christian faith...

And isn't it true when you see that kind of faith, determination, and perspective, it encourages you? It gives you confidence when you see how they approach life.

그의 사슬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성결케 했습니다. 그 사슬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매 24시간마다 바뀌는 네 명의 로마 군인들과 계사궁의 법관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믿음, 결연함, 관점을 볼 때 당신을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삶을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당신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 Persecuted church slide:

- 365 million Christians (1 in 7) face persecution because of their faith. In 2023:
- 4,998 Christians killed worldwide in faith-related attacks.
- 14,766 Attacks on churches, Christian schools + hospitals
- 42,849 Christians beaten or threatened
- 21,431 Attacks on Christian homes
- 278,716 Christians forced out of their home or into hiding

평화롭지 않은 교회 슬라이드: 2023년 기준, 전 세계에서 약 3억 6천 5백만 명의 기독교인(7명 중 1명)이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 전 세계에서 신앙과 관련된 공격으로 인해 4,998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했습니다.
- 교회, 기독교 학교 및 병원에 대한 14,766건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 42,849명의 기독교인이 폭행당하거나 협박을 받았습니다.
- 기독교 가정에 대한 21,431건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 278,716명의 기독교인이 집을 떠나거나 은신을 강요받았습니다.

These men and women inspire us to live with greater confidence...

Three categories of pressure we experience here in the US: indifference, opposition, and, at times, persecution. Some Christians call every external challenge “persecution,” which does a great disservice to those around the world experiencing real physical danger because of their faith.

Indifference – people don’t make special accommodation for our beliefs and practices...

Opposition – people proactively challenge our beliefs or practices

Persecution – targeting our beliefs and practices to inflict pain harm

Regardless of whether we experience indifference, opposition, or true persecution, let’s stand strong in our faith, with joy, in those moments especially, because our faith will encourage others to stand strong in their faith. Fear breeds fear, but joy breeds joy...

이들 남성과 여성들은 우리에게 더 큰 자신감으로 살아가도록 영감을 줍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압력의 세 가지 범주: 무관심, 반대 그리고 때로는 박해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모든 외부적 도전을 "박해"라고 부르지만, 이는 신앙으로 인해 실제로 신체적 위협을 경험하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에게 큰 불이익을 줍니다.

- 무관심 - 사람들이 우리의 신념과 실천을 위해 특별히 배려하지 않습니다.
- 반대 - 사람들이 우리의 신념이나 실천을 적극적으로 도전합니다.
- 박해 - 우리의 신념이나 실천을 공격하여 고통을 가하려는 것입니다.

무관심, 반대 또는 진정한 박해를 경험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단단하게 서서 그 순간에 특히 기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서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지만 기쁨은 기쁨을 낳습니다.

#### PAUL'S CRITICS

It is true that some preach Christ out of envy and rivalry, but others out of goodwill. The latter do so out of love, knowing that I am put here for the defense of the gospel. The former preach Christ out of selfish ambition, not sincerely, supposing that they can stir up trouble for me while I am in chains. Philippians 1:15-17 NIV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경쟁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다른 사람들은 선의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나는 복음 변호를 위하여 여기 두어진 줄을 앎이라 시기와 분쟁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은 순수하게 자기 이익을 위함이요, 그들은 내가 사슬에 묶여 있을 동안에 괴롭힘이 더 많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정직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빌립보서 1:15-17, 개역한글)

Paul describes a divided church... Churches have been divided since the pandemic – actually scratch that – they've been divided since about 30 years after Christ ascended.

The church will always have this - some preach Christ sincerely, and others preach Christ out of selfish ambition. Some preach Christ out of goodwill and love and others out of envy and rivalry...

The word Paul used for “stir up trouble” means to debate and was used to describe those who ran for political office – those who try to garner the support of others and are willing to be contentious in doing it...

What I’m seeing more and more, are those who choose to fight the culture wars end up not fighting FOR the gospel but often AGAINST it. Remember, everything in Paul’s mind is about the expansion of the gospel. That’s the goal – not cultural transformation. Some could argue that cultural transformation is the result of a gospel expansion, but fighting for culture change on its own never results in the gospel getting into hearts and lives.

But here’s the part that challenges me:

폴이 분열된 교회를 묘사합니다... 교회들은 팬데믹 이후부터 분열되어 왔습니다 - 사실, 그렇게 말하자면, 그들은 그리스도 승천 후 약 30년 후부터 분열되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렇습니다 -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기적 야망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의와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른 사람들은 시기와 경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폴이 "번거롭게 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논쟁을 뜻하며 정치직을 선거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며 논쟁스럽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저는 점점 더 보는 것은 문화전쟁을 싸우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종종 복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에 반대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폴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복음의 확장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 문화적 변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 변혁이 복음의 확장의 결과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문화 변화를 위해 싸우는 것 자체로는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를 도전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But what does it matter?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n every way, whether from false motives or true, Christ is preached. And because of this I rejoice. Yes,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 for I know that through your prayers and God’s provision of the Spirit of Jesus Christ what has happened to me will turn out for my deliverance. Philippians 1:18-19 NIV

그러나 그것이 어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방법으로, 부정한 동기든 성실한 동기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제공함으로써 저에게 일어난 일이 제 구원을 위해 되어 나갈 것입니다. (빌립보서 1:18-19, NIV)

Paul had no envy in his heart or ill-will toward those who he believed misrepresented the way of Jesus...

**One of the hardest parts of my job**, is bringing the pastors in our district together, who have radically different views about how the gospel expands...I've had to learn to press for unity, amidst diversity...

Paul is convinced of the power of the Gospel even if its delivery vehicle is broken. We see this over and over in church history. The Common Grace of God overpowers human brokenness.

**Tell story of two great English evangelists of the same time period** – John Wesley and George Whitefield...they had strong doctrinal disagreements...both of them saw thousands of people come to Christ...someone, probably wishing to stir up trouble asked Wesley if he expected to see Whitefield in heaven and Wesley said, “No, I do not.” The person followed up and said, “So, you don't think Whitefield is a Christian.”

Here's Wesley's response, “Of course he is a Christian. But I do not expect to see him in heaven – because he will be so close to the throne of God and I so far away that I will not be able to see him.”

Like Wesley- we need humility. And like Paul- we need to love the local church and the capital C Church and find every point of unity that we can - keeping Jesus and the Kingdom of God central.

폴은 예수의 길을 오해한 사람들에 대해 질투나 악의를 품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저와 사역자들이 복음 전파 방법에 대해 극명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이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입니다... 저는 다양성 가운데서도 단결을 추구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폴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으며, 그 전달 수단이 망가져 있더라도 그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통 은혜는 인간의 부서진 점을 능가합니다.

영국의 두 큰 전도자인 존 웨슬리와 조지 화이트필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그들은 같은 시기에 활동하면서 강력한 교리적 불일치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이끌었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논란을 일으키기를 원하며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웨슬리씨, 당신은 화이트필드를 하늘에서 만나겠습니까?" 웨슬리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물었고, "그러니까, 화이트필드를 기독교인으로 보지 않으시는 것 같군요."

여기 웨슬리의 대답입니다. "물론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를 하늘에서 볼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울 것이고, 저는 그보다 멀리 있어서 그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웨슬리처럼, 우리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폴처럼, 지역 교회와 대문자 C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와 하나님의 왕국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 PAUL'S CRISIS

I eagerly expect and hope that I will in no way be ashamed, but will have sufficient courage so that now as always Christ will be exalted in my body, whether by life or by death.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If I am to go on living in the body, this will mean fruitful labor for me. Yet what shall I choose? I do not know! I am torn between the two: I desire to depart and be with Christ, which is better by far; but it is more necessary for you that I remain in the body. Convinced of this, I know that I will remain, and I will continue with all of you for your progress and joy in the faith, so that through my being with you again your boasting in Christ Jesus will abound on account of me. Philippians 1:20-26 NIV

## 폴의 위기

저는 진심으로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식으로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지금과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영광 받으실 것을 고대합니다. 생명은 나에게서 그리스도시요, 죽음은 이익이라. 내가 육체에 계속 살면, 이는 나에게서 업적 있는 노고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택할까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이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육체에 남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으니, 나는 남아 있고, 여러분과 모두와 함께 하여 여러분의 믿음에서 진보와 기쁨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다시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나를 통해 사랑할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26절, NIV)

Here's Paul's crisis – he does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 whether he will be found guilty, executed, or found innocent and freed...but he wants to ensure that either way, Christ is exalted.

**I pulled out my telescope a couple months ago to get ready for the eclipse (worship team come up if ending service with a song)...** I ended up getting off a plane in Los Angeles as the eclipse began so I wasn't going to be able to see it...until I got off the metro and a worker was looking up at the sky with those special glasses...so I did what I typically would never do, went up and asked him if I could look for a moment...he was so awesome – it was like he wanted to share in the awe-inspiring view of the moon covering part of the sun...

I absolutely love looking at the stars and the planets...Of course, the stars are much bigger than my telescope, and yet my telescope exalts or magnifies those stars to bring them closer to our eyesight...

Here's the beauty – whether through our life or our death, may our lives be a telescope that brings Jesus Christ closer to the people around us...

There are moments, like the eclipse, when something so obvious happens that everyone takes notice (after 9-11 churches were full); but most of the time, though, we don't look up. For most people, Christ is illusive, hard to understand, a misty figure that lived centuries ago.

But through us, through our trust in Christ when the future is uncertain, how we respond to those who oppose us, how we love those with whom we disagree, will display the grandeur of God...

Most of us live microscope lives rather than telescope lives...we make small things bigger rather than bringing big things closer...

But what if everything in life and death was to bring Christ closer? Our chains, our critics, our crises...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여기는 바울의 위기입니다 - 그는 무엇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 유죄가 선고될까요, 처형될까요, 아니면 무죄가 인정되어 석방될까요... 그러나 그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가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몇 달 전에 일식을 준비하기 위해 망원경을 꺼내 봤습니다 (예배 팀이 노래로 마무리하는 경우, 함께 오세요)... 그러나 일식이 시작되자마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것을 취소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내렸을 때 근무자가 특별한 안경으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잠시 그의 안경을 빌려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정말 멋졌습니다 - 마치 달이 태양의 일부를 가리기 시작하는 그 훌륭한 광경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처럼...

나는 별과 행성을 정말 좋아합니다... 물론 별들은 내 망원경보다 훨씬 큼니다. 그런데도 내 망원경은 그 별들을 크게 보여주거나 가까이 다가오게 만듭니다...

여기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 우리의 삶이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더 가깝게 이끌어주는 망원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9-11 이후 교회가 가득 찼듯이, 때로는 일식과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불분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 수세기 전에 살았던 희미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미래가 불확실할 때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우리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응답할지,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따라,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망원경보다 현미경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크게 만들기보다는 큰 것을 가까이로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사슬, 우리의 비판자, 우리의 위기... 살아 계신 것은 그리스도, 죽음은 이익입니다...

And I want you to ask yourself today, **Does your life bring Christ closer to others? Do people see the love of Jesus on display, up close and personal through you? Through your trials? Through your suffering? Through your successes? Through your joy?**

For to me, to live is Christ means that He is our primary focus. Everything we do. The way we do it. All of it, is Jesus. For the sake of His gospel. This life is all about the good news of Jesus coming closer, being magnified...

For to me, to die is gain. It's a win-win scenario. If we keep our focus on Christ, in this life, we can't lose, even when we lose this life.

So, as the author of Hebrews taught us, let'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for the joy set before him he endured...consider him and his way of life so that you will not grow weary and lose heart...Amen?

### **PRAYER & RESPONSE...**

오늘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더 가깝게 만드나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명백히 드러나나요? 여러분의 시련을 통해? 고통을 통해? 성공을 통해? 기쁨을 통해?

내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님을 주요한 초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그 방법.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의 복음을 위해서. 이 삶은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확대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죽음은 이익입니다. 이는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삶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이 삶을 잃어도 진정으로 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가르쳐 준 대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시오. 그가 세우신 기쁨을 위해 고난을 참으셨으니... 그의 삶을 생각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기도와 대답...